

<번역 노트>

히브리어 ‘나기드’(נגיד) 번역에 대한 제언

소형근*

1. 서론

히브리어 ‘나기드’는 구약성경에서 약 44회 사용되고 있으며, ‘통치자’, ‘왕’, ‘지도자’, ‘관리’ 등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 ‘나기드’라는 용어는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사용되어 온 단어다. 즉, ‘나기드’는 구약성경에서 어느 시대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해당 인물에 대한 직책을 알 수 있는 용어다. 본 소고에서는 왕정 이전 시대, 왕정시대, 포로 이후로 나누어 히브리어 ‘나기드’가 누구였고, ‘나기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힐 것이며, 그 결과물을 통해 우리말 구약성경에서 ‘나기드’에 대한 적절한 번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고대 근동의 용례

히브리어 ‘나기드’는 고대 근동의 언어들과 유사한 형태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아람어 스피레 문헌(Sefire III, 10; *ngdy*)에는 ‘나의 높은 자들’(my high ones), ‘나의 장군들’(my generals)로, 아람어 사카라 파피루스(Saqqara Papyrus; *ngd*)에는 ‘군사령관’(commandant)으로, 페니키아어로 기록된 노라 비문(Nora inscription; *nagīd*)에는 ‘군사령관’(commandant)으로 나온다. 암몬어(*nāgid*)와 아랍어(*najada*)에서는 ‘군지휘관’(commander)이라는 명사와 ‘높은’(high), ‘고위직의’(exalted)라는 형용사로, 그리고 사마리아어에서는 ‘지도자’(leader)라는 의미로 쓰인다.¹⁾ 이처럼 고대 근동에서 ‘나기드’는 일반적으로 ‘군대 지휘관’과 ‘지위가 높은 자’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용어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히브리어 ‘나기드’가 고대 근동의 어떤 문자와 언어로

* 서울신학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구약학.

1) G. F. Hasel, “נגיד”, TDOT IX (Grand Rapids: Eerdmans, 1998), 188-190.

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히브리어 ‘나기드’와 유사한 언어적 형태의 용어들이 고대 근동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었음을 볼 때, 히브리어 ‘나기드’가 고대 근동으로부터 영향 받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나기드’의 용례를 분석해 볼 때 독특한 것은 ‘나기드’가 시대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즉, 구약성경에는 왕정 이전의 ‘나기드’와 왕정시대 ‘나기드’(정확히 말하면 히스기야 때까지), 그리고 포로 이후의 ‘나기드’의 쓰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3. 왕정 이전

구약성경에서 히브리어 ‘나기드’로 처음 호명된 인물은 사울이다(삼상 9:16). 사무엘상 9:16은 사울이 아직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 상황이며, 우리말 성경(개역개정)에서는 이 사울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 본문의 맥락에서 ‘나기드’는 왕적인 개념을 말하기 보다는, 사울이 ‘군사적 지도자’로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야 할 책임자임을 알려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따라서 사무엘상 9:16에서 사울을 가리켜 히브리어 ‘멜렉’(מֶלֶךְ)이 아닌, ‘나기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나기드’를 ‘왕’이나, ‘군주’의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리히터(W. Richter)는 ‘나기드’가 왕정 이전에 북쪽 지파(Nordstämme)에서 기원되었다고 말한다.²⁾ 슈미트(L. Schmidt)는 리히터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나기드’는 왕정 이전 시대에 군대 총지휘관이었고, ‘카친’(קָצִין)은 ‘나기드’의 하위 개념의 지휘관이었으며, 왕정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르 하차바’(שַׂר הַצְּבָה)가 ‘나기드’의 역할을 넘겨받았다고 말한다.³⁾ 그러나 왕정 이전에 ‘나기드’가 군대 총지휘관이었다는 것은 사울을 통해서만 입증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는 ‘나기드’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왕정이 형성되기 이전, 사사시대에는 ‘나기드’의 역할과 유사한 용어로 ‘카친’(קָצִין)이 있었다. 이 ‘카친’은 사사시대 입대에

2) W. Richter, “Die Nagid-Formel. Ein Beitrag zur Erhellung des nagid-Problems”, *BZN Folge 9* (1965), 71-84.

3) 소형근, “노라(Nora) 비문과 구약의 ‘나기드’ 연구”, 『구약논단』 29 (2008), 156에서 재인용. 원문은 L. Schmidt, *Menschlicher Erfolg und Jahwes Initiative*, WMANT 38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0), 155.

게 붙여졌던 직책이었다(삿 11:6, 11).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으로부터 이스라엘 지파들을 구해야 할 군대 지휘관의 역할을 담당했던 자였다. 그런데 이 ‘카친’이 ‘나기드’의 하위 개념이었다는 슈미트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카친’의 상위개념으로서 ‘나기드’의 존재가 입다가 사사로서 통치하던 시대에 존재했을 가능성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정 이전 시대에 ‘나기드’는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개념이었으며, 이 ‘나기드’가 어디서 기원되었고, 사사시대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 ‘나기드’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에게 처음 적용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야 할 ‘군사적 지도자’로서 사울의 모습을 사무엘서에서는 묘사하고 있다는 것만이 분명하다. 필자는 이때 이 ‘나기드’를 군대 최고 지휘관에 해당하는 ‘군사령관’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4. 왕정 시대

왕정이 형성된 이후 사울의 뒤를 이어 ‘나기드’로 불렸던 인물은 다윗이었다(삼상 25:30; 삼하 5:2; 6:21; 7:8; 대상 11:2; 17:7). 다윗 이후로는 솔로몬(왕상 1:35; 대하 6:5), 여로보암(왕상 14:7), 아사(왕상 16:2), 히스기야(왕하 20:5)에게 ‘나기드’라는 직책이 붙여졌다. 이들은 모두 왕정시대를 배경으로 ‘멜렉’(king)이면서, 동시에 ‘나기드’였다. ‘멜렉’이 전체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강조하는 용어라고 한다면, ‘나기드’는 왕적인 기능 아래에 있는 군사적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신명기 역사서를 인용하고 있는 역대기 일부 본문들은 ‘나기드’를 ‘왕’이었던 사람이나, ‘왕’이 될 사람으로 제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말 『개역개정』에는 이 ‘나기드’를 어떤 경우에는 ‘지도자’(다윗[삼상 25:30]; 아비아[대하 11:22])로, 또 어떤 경우에는 ‘주권자’(다윗[삼하 5:2; 6:21; 7:8; 대상 11:2; 17:7]; 솔로몬[대하 6:5]; 여로보암[왕상 14:7]; 아사[왕상 16:2]; 히스기야[왕하 20:5])로, 또 어떤 경우에는 ‘통치자’(솔로몬[왕상 1:35])로 달리 번역하고 있다. 구약성경 역사가는 ‘왕’ 즉, ‘멜렉’이라는 용어에 추가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해서 ‘나기드’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나기드’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용어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어 ‘나기드’를 우리말로 굳이 ‘지도자’, ‘주권자’, ‘통치자’로 달리 번역할 필요가 있을까? 질문을 던져본다. 오히려 필자는 이 용어의 우리말 번역에 있어서 통일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왕’이면

서 ‘나기드’인 경우, 이때 ‘나기드’는 군사적 최고 책임자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왕’이면서 ‘나기드’인 경우에 히브리어 ‘나기드’에 대한 우리말 번역은 ‘군사령관’⁴⁾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히브리어 ‘나기드’를 수식하는 명사가 ‘이스라엘’이나, ‘백성’일 경우는 ‘군사령관’을 의미하지만(신명기 역사서에 나오는 모든 본문이 이에 해당), 그 밖의 다른 명사가 올 경우, 예를 들면 ‘형제들 가운데 나기드’(대하 11:22)의 경우에는 이 ‘나기드’를 ‘우두머리’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역대하 11장 22절에는 르호보암 왕이 아비야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는데, 아비야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개역개정)로 삼았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경우에 ‘나기드’는 군사령관의 역할이 아니라, 형제들 중 으뜸을 상징하는 ‘우두머리’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왕정시대 ‘멜렉’이면서 ‘나기드’로 불리던 자들은 ‘군사령관’ 혹은 ‘우두머리’로 번역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나기드’ 용례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예레미야 시기인 기원전 7세기가 되면서 ‘나기드’가 ‘왕’이 아닌, ‘제사장’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어 ‘나기드’가 ‘왕’이 아닌, 일반인에게 적용되었던 첫 번째 인물은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이다(렘 20:1). 여기서 바스홀의 역할은 아웨의 “성전 총감독”(נָיִד בְּבֵית יְהוָה)이다. 왜 왕정시대 ‘왕’이 아닌, 제사장에게 ‘나기드’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마도 예레미야 20:1은 포로 이후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본다.

5. 포로 이후

포로 이후 본문들에는 히브리어 ‘나기드’가 자주 쓰이고 있다. 그러나 포로 이전 용례들과는 달리, 포로 이후 ‘나기드’는 ‘왕’이 아닌 일반인들의 호칭으로 사용되었고, 그 빈도수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포로 이후는 이스라엘의 유다 왕조가 사라지면서 더 이상 유다 혈통에 의한 왕적 통치가 끊어진 시대였다. 그 결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속주에 임명된 총독이 포로 이전 왕적인 기능을 대신해야만 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구약성경

4) 오늘날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고, 또한 군통수권자가 된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軍)을 통제할 뿐, 전선(戰線)에 직접 나서지는 않는다. 그와는 달리 고대 사회는 ‘왕’이 국가원수이면서, 때로는 직접 전장(戰場)에 나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거나(예. 왕하 6:8), 혹은 전사하기도 했다(예. 왕하 23:29). 그런 면에서 ‘왕’인 ‘나기드’를 ‘군통수권자’라는 표현보다 ‘군사령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은 포로 이후 총독을 ‘나기드’라고 부르지 않는다. 즉, 포로 이후 ‘나기드’로 불리던 자들은 왕정 시대처럼 왕적 기능과 군사령관직을 동시에 수행하던 총독이 아니었다.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는 ‘나기드’라는 신분을 ‘총독’에게 적용하지 않고, 왕정 시대 사용하던 ‘우두머리’, ‘수장’(首長)의 개념으로 유다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적용시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로 이후 ‘나기드’에 대한 의미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성전 봉사자들 중 우두머리(대상 9:20; 26:24; 대하 31:12-13 등)인 경우나, 혹은 법정에서 행정관리(대하 19:11 등)인 경우, 혹은 왕의 신하, 즉 관리로서 군지휘관(대상 13:1; 대하 11:11; 28:7 등), 그리고 가문의 우두머리(대상 12:27[히, 28절]; 27:16 등)를 말할 때 이 ‘나기드’가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히브리어 ‘나기드’가 포로 이후 다양한 의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왕정 시대 왕으로서 군사령관직이 사라지고, ‘나기드’의 ‘우두머리’, ‘수장’의 개념만이 포로 이후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덧붙여 이 ‘나기드’가 포로 이후 사어(死語)가 되지 않고, 후대까지 다양한 신분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성경 사가들의 노력의 결실로도 볼 수 있다.

6. 결론

종합해 보면, 히브리어 ‘나기드’는 왕정 이전 시대에 ‘군사적 지도자’, 즉 ‘군사령관’을 의미했으며, 왕정시대에는 ‘왕’이자 ‘군사령관’으로 불리다가, 기원전 7세기가 되면서 일반인에게 ‘나기드’ 호칭이 부여되었다. 왕정이 무너지고, 더 이상 왕이 존재하지 않던 포로 이후에 ‘나기드’는 ‘성전 봉사자’, ‘행정 관리’, 왕의 신하로서 ‘군지휘관’, 그리고 집안의 ‘우두머리’를 말할 때 사용되었다. 이처럼 히브리어 ‘나기드’는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다양한 의미로 변화를 거듭해 왔다. 끝으로 히브리어 ‘나기드’에 대한 우리말 성경 번역을 제안한다면, ‘나기드’가 왕정 이전 시대와 왕정 시대에는 왕이 될 사람이나, 왕이었던 사람에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군사령관’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듯하며, 포로 이후에는 각 사람의 신분이나 직책에 따라 ‘성전 지도자’, ‘관리’, ‘군지휘관’, ‘우두머리’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